

# 언론 사람

## 인터뷰

홍창형 중앙자살예방센터장

## 특집

###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 여론조사 독해법  
우리 대통령은 내 손으로

## 옛 그림과 차 한잔

르네상스맨 김정희,  
그의 세한도

## 위원회 뉴스

제14대 박용상 위원장 퇴임

2017  
Vol.203

5

언론과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혼자가 아니라 단체로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 다녀와서 떠오르는 기억 중에서 내가 다녔던 곳보다는 같이 다닌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더 많았던 경우가 왕왕 있다. 박물관은 어땠으며 유람선은 또 어땠고 그 식당에서 뭘 먹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대신, 박물관에선 A가 시끄럽게 떠들다가 경비원의 지적을 받아 일행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으며 유람선에선 B가 말을 거칠게 하는 바람에 정신이 혼미해졌으며 그 식당에선 C가 종업원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바람에 소화불량에 걸리는 줄 알았다는 식이다. 자고로 여행은 혼자 가야하는 모양이다. 북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이곳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다. 2층 테라스에서 기린 두 마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 CONTENTS

2017 May Vol.203

홈페이지 [www.pac.or.kr](http://www.pac.or.kr)

언론중재 Eye-Net [people.pac.or.kr](http://people.pac.or.kr)

 [pacblog.kr](http://pacblog.kr)

 [facebook.com/pacnews](https://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https://twitter.com/pac_news)

발행인 양인석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7년 5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계문사 T 02-725-5216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02 클로즈업

## 04 인터뷰

홍창형 중앙자살예방센터장

## 06 심리학브런치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 07 언론법 이모저모

〈미인도〉 위작 논란과 사자 명예훼손

## 08 특집 ① -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 여론조사 독해법

## 09 특집 ② - 제19대 대통령선거

우리 대통령은 내 손으로

## 10 세상읽기

화이부동(和而不同) 동이불화(同而不和)

## 11 영화 속 설득이야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12 옛 그림과 차 한잔

르네상스맨 김정희, 그의 세한도

## 14 위원장 퇴임식 / 위원회 뉴스

## 15 위원동정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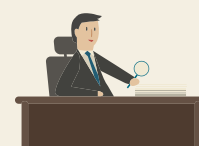
###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실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장 불행한 선택을 바꾸는 따뜻한 한마디 ‘괜찮니?’

홍창형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014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2016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정책이사  
2016 ~ 중앙자살예방센터장  
2017 제45회 보건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66

자살을 정말 막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다.  
‘괜찮니?’라는 관심의 표현,  
‘자살’을 금치어처럼 여기는 언론의 인식,  
이 두 가지면 누구나 생명을 구하는  
송고한 일에 기여할 수 있단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딱 좋은 오월,  
주변을 둘러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는 것은 어떨까?

99

**Q | 노인정신보건,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A |** 2004년 경기도 광주시 정신보건센터장을  
맡게 되면서 병원에 오는 환자 외에도 정신질  
환을 앓고 있지만 소외되어 도움이 필요한 분  
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  
회에 시작했지만 병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  
역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가치 있  
다고 생각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동시에 우  
리나라 정신건강사업의 현실도 보게 되었죠.  
2004년 당시 치매환자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  
서 기저귀를 사서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안타까웠죠. 일생을 살면서 소아  
우울증, 인터넷 중독, 조현병, 우울증, 치매 등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제 생  
기느냐의 문제이죠. 이러한 정신질환이 발병했

을 때 개인이 극복하는 힘과 더불어 사회 시스  
템의 보조가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  
인 정신건강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를 연계하여, 재활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  
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지난 10여 년 동안  
치매 예방을 위한 검진사업이나 발병 시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도  
지속해서 발표하고, 지역통합관리시스템을 만  
드는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센터  
장까지 맡게 됐죠. 자살예방은 정신건강의 요  
체입니다. 여러 정신건강의 문제가 결국에는  
자살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 자체가  
나머지 정신건강사업의 최종 단계이기도 하면  
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Q | 우리나라 자살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의 자살률이 높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40대 이상 남성의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령별 또는 성별 자살 현황이 어떠한가요.**

A |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가 절대 아닙니다. 언론이 뉴스거리가 되는 청소년 자살 사건을 주로 보도하고 입시 등 스트레스가 많으니 청소년 자살률이 높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오해죠.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자살률은 세계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뿐, 실제로는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80대 이상 인구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2~3배입니다.

자살자 수로 보면 50대 남자의 자살자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 70대 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7대 3 정도고요. 40·50대 남성의 자살은 내몰리는 자살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워 실직할 경우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죠.

**Q | 언론·방송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자살 방법과 수단에 대해 세부적으로 묘사할 경우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요?**

A | 2013년 자살예방협회에서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 자살 이후 발생한 모방자살에 대해 연구했는데, 2008년 최진실 씨 사망 이후 두 달간 자살자 수가 천명이 더 늘었고 이 중 80%가 최진실 씨와 같은 방법으로 사망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여과 없이 보도했기 때문이죠. 많은 보도가 자살이란 단어를 헤드라인에 적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는 등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과연 연예인이 어디서,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청소년 자살 사건 보도도 자극적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성적을 비판

해 자살했다고 보도하는데, 사실 그 아이가 자살한 이유는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모도 알기 어렵습니다. 기자가 추정해 쓰는 것이죠. 이러한 보도의 문제점은 독자들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자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하일성 씨가 6천만 원의 빚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보도했는데, 독자 중 일부는 ‘나도 6천만 원의 빚이 있으니 자살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빚이 많아도, 치명적인 병에 걸려도 곳곳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면 자살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일 뿐, 상황 자체가 자살의 주요 원인은 아닙니다. ‘자살은 예방 가능하고 그 원인 역시 치료 가능하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략을 갖고 집중적으로 맥을 짚어 나가면 자살률은 떨어집니다.

**Q | 그렇다면 가장 손쉽게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라가 잘 살고 그래서 국민이 행복하면 자살률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살예방사업이 아닌 국정입니다. 통계적으로 1997년도 IMF, 2002년도 카드대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음 해인 1998년, 2003년, 2009년에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통해 완충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자살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된 뒤에는 똑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살률이 올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국정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면 언론인의 인식 변화를 통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는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며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정성과 폭력성을 고려해 TV에서 출연 장면이나 흥기가 모자이크 처리되고 있듯 자살 또한 금치어처럼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사의 영향력을 고려해 자살보도 권

고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Q |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자살 예방사업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 우선,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란 자살 고위험군, 즉 주변에서 자살의 경고 사인을 보내는 사람을 빨리 발견해서 병원이나 치료 상담사를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27만 명을 교육했습니다.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도 역점 사업 중 하나죠. 인터넷에 올라온 동반자살자를 모집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글,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거나, 피가 낭자한 자해 사진 등의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신고를 받아 삭제를 요청한 건이 2만 6천여 건에 달합니다.

대국민 자살예방 캠페인 <괜찮니?>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의 보고서를 보면 10명 중 9명이 자살 전 신호를 보내는데 유가족이나 친구들 10명 중 8명이 눈치를 못 챌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괜찮니?’ ‘잘 지내니?’ ‘뭐가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라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은 풍선이 커지고, 커지다 뽕 하며 터져버리는 것과 같아요.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을 때 ‘괜찮니?’라고 묻는 순간,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살을 예방하자’는 너무 어렵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괜찮니?’라며 부드럽게 접근해보았죠. 물론 ‘괜찮니?’라는 말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으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 또는 개인이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하게 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가족이나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좋은 심리학 서적을 권하거나, 성경이나 불경 글귀를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아빠 또는 엄마가 그 나이 때는 어땠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어떤 좋은 말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기가 더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의외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 털어놓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따돌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당연히 자녀가 힘들었을 생각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듣는 순간의 속상한 감정이 너무 강해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렵죠. 하지만 내가 힘든 상황에서 화를 내는 부모를 보며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서 속상해하시는구나. 나도 힘내야지”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은 화를 내니까, 앞으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기 쉽죠. 물론 힘들 때 이렇게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꼭 가족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로 마음이 단힐 수 있겠죠.

심하게 우울하거나, 일상에서 일어나기 힘든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에는 당장은 새로운 정보의 입력이 어렵습니다. 다치고 찢어지면 그 상처가 일단 나아야 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도록 하는 것에 신체의 역량을 많이 쏟게 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죠. 뇌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므로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는 남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키보드가 고장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의 입력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우울하거나 하루 종일 공황이 계속될 때,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뇌의 설명한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해주는 좋은 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소음과 똑같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같은 공간에 있어 준다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11 테러의 경우, 재난 직후부터 즉각적으로 심리 전문가들의 개입이 이루어졌는데요, 생존자들이 테러 직후에 가장 도움을 받았다고 느낀 것은 정신과 의사들의 훌륭한 말이나 약물치료가 아니라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환경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를 겪을 때 어느 정도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전문가에게 가서 “우리 애가 SNS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라고 상의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엇을 도와달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게는 “엄마가 나서길 원하니, 가만히 있길 원하니”와 같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객관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상대방의 고통으로 인해 힘든 나 자신을 위로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기 어려우며 위로 역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 <미인도> 위작 논란과 사자 명예훼손

언론법 영역에서 종종 이슈가 되곤 하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회고록 등에서 특정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당사자 본인은 이미 죽고 없지만 후손들이 조상의 명예회복에 발 벗고 나서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과연 후손들에 의한 역사바로세우기는 가능할 것인가?

언론보도가 문제 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사자 명예훼손이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이다. 10·26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재규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이 그림은 세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지금은 고인이 된 천경자 화백조차 살아생전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지난 4월 19일부터 소장품특별전을 열며 위작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미인도>를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유족 측을 배려해 작가의 이름을 감추었다고는 하지만 유족 측은 그림을 전시한 행위 자체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죽은 사람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은 확실히 존재한다. 그런데 법은 원칙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 혹은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은 그런 점에서 예외적인 보호의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예외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자 명예훼손’이다.

사자 명예훼손을 주장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누구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이다. 고인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유족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자 명예훼손이니 고인을 피해자로 보는 것이 당연한 듯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률상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우선, 고인을 피해자로 본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된다.

고인을 피해자로 볼 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와 같은 민사상 구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죽은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명예훼손이 언론보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고인의 사후 30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언론중재법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유족을 피해자로 보는 경우다. 어떤 면에서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로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유족이다. 유족이 고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리움, 존경심 등 애절한 추모 감정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유족 자신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침해행위의 중단,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2013나2004096, 2004102).

고인을 피해자로 보든지, 유족을 피해자로 보든지 실제 법적인 절차를 수행할 사람은 유족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대비하여 형사소송법 제227조에서는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권자의 범위를 죽은 사람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넓혀놓고 있으며, 언론중재법 제5조의2에서도 일반 상속권 순위와 똑같은 순서로 피해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한, 사람은 죽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취급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 대선 여론조사 독해법

욕하면서 본다는 막장 드라마의 이율배반, 여론조사가 꼭 그렇다. 매일 같이 차고 넘치지만, 그 믿음은 바닥에 가깝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여론조사 역사를 ‘비난 혹은 비판의 역사’라고 하겠는가. 지난해 4월 한국 총선, 6월 영국 브렉시트, 11월 미국 대선 예측 실패 이후엔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극언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는 말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첫째, 조사 결과, 즉 후보 지지율이 조사마다 달라 헛갈린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오차를 포함하는 ‘확률적 결과(지식)’다. 1,000명 정도의 표본을 조사해 전체 유권자의 선호와 태도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실제적 진실과의 차이가 불가피하다.

특히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것이다. 가령, 오차범위가  $\pm 3.1\%$  포인트일 경우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6.2%포인트 이내이면 누가 앞섰다고 말할 수 없다.

둘째, 선거가 끝나고 확인해보니 여론조사가 틀리다는 것이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법에 따라 투표일 6일 전부터 공표가 금지된다. 즉, D-7일 시점까지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최종 득표율은 부동산, 막판 돌출 변수 등으로 인해 일치하는 게 오히려 어색하다. 결국 5월 2일까지 보도 가능한 여론조사 지지율 수치를 9일 최종 득표율과 비교해 진위를 가리는 건 여론조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직전 선거, 즉 작년 총선 여론조사가 틀렸으니까 이번에도 별수 없을 것이란 시각 역시 오해다. 총선은 총선거리 대선은 대선끼리 비교해야 한다. 이회창 후보 대세론,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및 지지 철회 파동에도 불구하고 2002년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노 후보 당선을 정확히 예측했다.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2012년 대선에서도 대다수 여론조사가 박근혜 후보 승리를 예측했다. 이번 대선 여론조사는 단일 선거구, 유·무선 RDD, 지지율 합산 방식 등이 예측 정확성을 높여줄 것이다.

여론조사 보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약간의 지식과 수고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오차범위를 고려한 지지율 읽기다. 가령, “A 후보 40% 대 B후보 35%,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범위  $\pm 3.0\%$ 포인트”일 경우, 동일 조사를 100번 실시했을 경우 95번은 A 후보 37~43% 대 B후보 32~38%라는 뜻이다. 비록 이번 조사에서 A후보가 5%포인트 앞섰지만, 통계적으론 앞선 게 아니다. 심지어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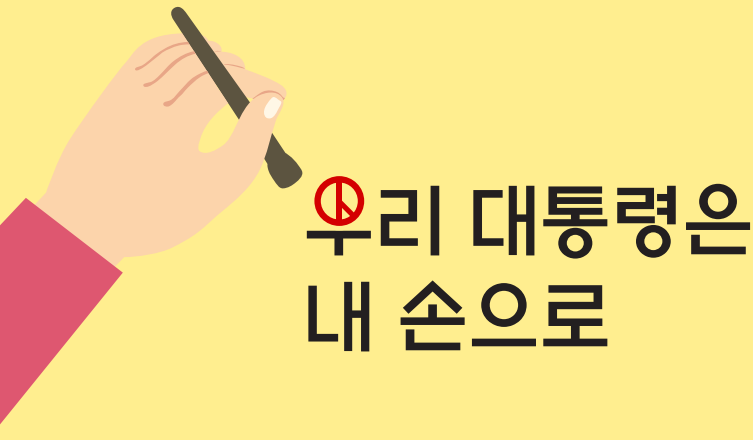


후보 37%, B후보 38%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제목 대선 본문을 읽어야 한다. 잘못된 혹은 과장된 제목을 뽑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지지율 수치가 좀 튀는 느낌이 들면, 해당 여론조사의 질문내용이나 응답률 등 조사 개요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조사결과표 등 상세 자료를 체크하면 좋다.

서로 다른 지지율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여러 개의 수치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 하나의 조사보다 여러 개의 조사 속에 진실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 바람직한 건 동일한 언론사-조사기관이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세’를 읽어야 한다. 특정 시점의 지지율은 신의 영역이지만, 그 추세는 인간의 영역이고 또한 여론조사의 자량거리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은 대부분 언론이 초래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각성이 우선돼야 하지만,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총선 여론조사 및 보도 문제점에 공감한 언론 관련 5개 단체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말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제정했지만, 과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기자가 얼마나 있을지 걱정스러운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쟁’을 치르고 있는 후보와 캠프는 말할 것도 없고, ‘실탄’을 공급하고 있는 조사기관 역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저 우리 유권자들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것은 마음 설레는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 때가 사회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불편한 시간인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선거가 가지는 불화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축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축제로 여기든, 아니면 으레 때 되면 찾아오는 성가신 통과리레쯤으로 여기든 확실한 것은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오랜 투쟁을 통해 얻은 결과물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이 권리를 획득하는 데 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직접 선택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가 처음입니다. 일제 침략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이 땅의 지도자는 백성들의 뜻과 관계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심지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조차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 있었는가 하면 이상한 방식의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최고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를 각자가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선 안 되는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후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후보의 이미지에 속아 투표를 하거나 혈연이나 지연 등 대통령의 자질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요소를 후보 선택의 척도로 삼아선 결코 안 됩니다.

한편 오늘날은 여론 형성과 전달이 언론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불공정한 보도를 할 경우, 결국은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선거기사(사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선거기사에 제재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기사심의는 언론사의 난립 등으로 언론 생태계가 악화되면서 일부 언론이 형평성보다는 편파성, 공정성보다는 선정성에 치우친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 사후적인 제재뿐 아니라 불공정한 보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들과 보좌하는 직원들은 오늘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나 유언비어 등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선거기사심의만으로 공정선거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똑똑한 유권자, 정신 바짝 차리는 유권자가 되지 않으면 후보들이 연출한 이미지에 속거나, 편파뉴스나 가짜뉴스에 속아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잘못 행사하기 쉽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신성한 선언도 그저 그럴듯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선거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자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 화이부동(和而不同) 동이불화(同而不和)



공자의 〈논어〉 자로편에 보면,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러모로 군자와 소인을 대비하는 중에 별 맥락없이 마치 선언처럼 등장하고 있어서 그 깊은 의미를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큰 울림이 있다. 특히 서로의 생각이 같으나 다르냐를 기준으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조에서 공자의 통찰력은 우리를 깊게 돌아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흔히 ‘같다(同)’는 것은 ‘다르다(異)’는 것과 짝을 이룬다. 그래서 같은 편이 형성되면 동시에 다른 편도 형성된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은 아군이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적군이 된다. 그런데 사람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끌도 없이 넓혀 내 편의 사람을 늘리고 싶어한다. 사람의 이런 심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남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자연스런 본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욕구의 위장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같아질 것을 강요하는 것의 폭력성에 맞서서 ‘다름’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자 그룹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스스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다수의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런 동일성의 강요에 맞서 다름을 주장하고 그 다름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 역시 그 본질에 있어서는 폭력적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다시 말해서, 다름을 주장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같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도 다름 안의 또 다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다름이 아니라 사이비 다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음’과 ‘다름’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동

전의 앞면과 뒷면일 뿐이다. 그래서 같음의 반대는 다름이 아니라 ‘어울림(和)’이다. 물론 다름의 반대도 같음이 아니라 어울림이다. 이처럼 세상을 같음/다름의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조화/불화의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조화의 극치를 제주도에서 흔히 보이는 돌담에서 본다. 돌담을 자세히 보면 우선 그 돌담을 쌓는데 사용되는 돌들이 모두 자연석인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에서 형성된 각양 각색의 크기와 모양에 어떤 변형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돌재로 자연석을 사용하는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지만 돌담을 쌓는데 어떤 돌도 쓸모없는 돌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쓸모 있다(유용)/쓸모 없다(무용)의 구분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자(老子)가 이야기하는 쓸모없음의 쓸모있음(無用之用)이자 함이 없는 함(爲無爲)이 아닌가.

불화하는 삶은 괴롭다. 가까운 이웃이나 동료와 불화하는 삶이 괴로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회 혹은 시대와 불화하는 삶 역시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삶에 어떤 의욕이나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파괴적인 욕망이다. 그런 파괴적인 욕망이 사회에 넘쳐날 때 그 사회는 불난 집과 같고 이른바 지옥이 된다. 요즘 한국사회가 경쟁만 치열한 가운데 희망도 전망도 없는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시비(是非)를 가리는 말싸움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각종 주장들이 칼날처럼 부딪치는 사회는 살기가 등등한 지옥이다. 사람들의 행복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공자의 ‘화이부동’이라는 이 한 마디가 던져주는 심장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보는 상호성의 법칙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작년 12월에 개봉했으나 여전히 울림이 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설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호성의 법칙’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는 본인도 아프고 먹고사는 일이 힘든 와중에 더 어려운 케이티를 돕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타지로 이사 온 케이티를 몰심양면으로 돌봐주지요. 그런 케이티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매춘부가 되자 이를 알게 된 다니엘은 그녀를 말합니다.

**다니엘** 케이티, 내 말을 들어줘.

**케이티** 따라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다니엘** 자네한테 주려고 책장을 만들었어. 정말 역장이 무너지는군.

**케이티** 300파운드나 벌었어요. 애들한테 과일도 사 줄 수 있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케이티는 다니엘의 말을 쉽게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많은 호의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상호성은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주었을 경우, 나도 상대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케이티가 다니엘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은 바로 다니엘의 제안을 수용하는 일이겠지요.

이처럼 상호성의 원리는 설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설득하고 싶은 상대에게 어떻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까요? 첫째, 너무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하는 의심을 싹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꺼번에 양보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처음에는 오천만 원을 부르던 딜러가 갑자기 “그럼 사천만 원만 주시죠. 제가 양보해드린 거예요”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라? 더 낮은 가격을 불러도 가능한 거 아니야?’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호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도 뭔가 저 사람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만큼만, 양보는 ‘아, 저 사람이 참 어렵게 양보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정도여야 하지요.

둘째, 상대에게 주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1월호에 다루었던 ‘경청’이야말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호의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보답하려는 마음, 즉 우리의 의견을 수용할 마음이 생기지요. 미소, 공감, 칭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호의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볼까요? 케이티의 딸 데이지는 다니엘이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를 찾아갑니다.

**데이지** 아저씨! 아저씨랑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전화했잖아요. 아저씨, 엄마 좀 만나주세요.

**다니엘** 그만 가렴. 데이지. 내가 몸이 안 좋아.

**데이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딜런이 사탕도 줬어요. 아저씨가 보고 싶데요.

**다니엘** 부탁이니 그냥 가렴.

**데이지** 그럼 하나만 물어봐도 되나요? 우리를 도와주셨죠?

**다니엘** 그랬지...

**데이지** **저도 돕고 싶어요.**

그를 돕고 싶다는 데이지의 마음이 상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작은 소녀의 설득에 못이겨 문을 열어준 것 역시 그동안 데이지와 딜런에게 받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호의에 대한 보답인 셈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가 좋아할 만한,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베풀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역시 당신에게 보답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고, 바로 그때 설득하고 싶은 제안을 한다면 상대방은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요?

## 유배지에서 그려낸 고고한 기개, '문인화의 정수'돼 우리 곁에...



추사 김정희 세한도, 국보 180호, 종이에 수묵, 27.2x69.2cm, 개인소장

추사의 <세한도(歲寒圖)>, 잘 아시지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신문과 방송에도 자주 소개되는 그림이니 한국인이란면 모를 리 없지요. 그런데 <세한도>를 처음 접하면 낯은 집 한 채에, 나무 몇 그루가 그려졌을 뿐인데 왜 그리 대단하다고들 하나 가우뚱해집니다. 사실 그림이 좀 썰렁하긴 하지요.

하지만 <세한도>에 갖는 스토리를 알게 되면 그림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정조 때의 문장가 유한준이 남긴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나니”라는 말처럼요. 자, 이제 <세한도>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세한도>는 참으로 단조로운 그림입니다. 황량한 분위기가 자아내는 쓸쓸한 정서가 화폭 전체에 흐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표표하고 당당한 느낌이 들지요.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는 경주 김씨 명문가 출신입니다. 증조부가 영조의 사위였지요. 스물네 살 때는 청(淸)으로 떠나는 사절단의 부사였던 부친을 따라 연경(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웅방강, 완원 같은 청나라 문사들과 만나 이후 교유를 이어갔지요. 추사는 금석학과 서화를 깊이 연구했는데 청에서도 그의 연구서를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840년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를 비판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유배형 중에서도 가족조차 만날 수 없는 극형이었다네요. 더구나 가장 가깝게 지냈던 김유근이 세상을 뜨고, 아내와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자 절망감은 극에 달했지요.

주변 사람들은 추사가 유배를 당하자 가까이하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제자였던 우선(藕船) 이상적(1804~1865)은 스승에 대한 존경을 버리지 않고, 신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인 출신의 역관이었던 이상적은 연경에 다녀올 때마다 귀한 서책들을 구해 스승에게 보내곤 했지요. 현지의 소식을 담아서요. 절해고도의 유배지에서 오로지 책을 벗 삼아 지내던 추사로선 더없이 반가운 선물이었습니다.

염량세태 속 제자의 정성에 감응한 추사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1844년에 탄생한 <세한도>입니다. 그림은 허름한 집 한 채와 네 그루의 나무가 전부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휩쓸고 간 뜰에는 황량함만 감도는군요. 추사는 늙은 나이에 남녘 섬에 버려진 심경을 짙짙 갈라지는 갈필로 토해내듯 그렸습니다. 세상과 인간사를 압축하면서요.

그림에 회한만 담은 건 아닙니다. 역경에 맞서는 선비의 의지도 이입시켰습니다. 누옥을 보세요. 원근법 따위는 무시한 채 가느다랗게



추사 김정희의 자화상



추사 김정희가 1844년에 그린 영영백운도. 23x140cm. 개인소장

이어진 선들이 단정하게 집을 형상화했네요. 외양은 누추하지만 그 속 추사의 깨끗한 삶이 연상되지 않나요?

이제 나무들을 살펴볼까요. 오른쪽의 고목은 뿌리가 대지에 박혀 있지만 가로로 길게 뻗은 한줄기에만 솔잎이 달려 있네요. 추사 자신임을 단박에 알겠어요. 그 옆의 곧게 뻗은 소나무는 푸른 잎들이 허름한 집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스승을 변함없이 챙기는 제자에게 탄복한 추사는 이 나무를 유독 싱그럽게 표현했네요.

화폭 왼쪽의 잣나무 두 그루도 곧은 줄기가 하늘을 향해 솟아있군요. 비록 황량한 유배지에 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당당히 하겠다는 선비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게다가 <세한도>는 전체적 구성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나무들과 토담집, 글씨와 낙관이 절묘한 자리에 배치돼 팽팽한 균형감을 선사합니다. 지조 높은 작가의 내면세계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추사는 오른쪽 상단에 <세한도>라는 화제를 예서체로 단정하게 쓴 다음, ‘우선시상(우선(藕船), 보게나’라는 뜻), 완당’이라 적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는 제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발문을 곁들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난해 <만학>과 <대운> 문집을 보내주더니 올해는 우경의 <문편>을 보내왔도다. 이는 모두 세상에 흔히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만리 먼 곳으로부터 사와야 하며, 여러 해가 걸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은 오로지 권세와 이익에만 수없이 찾아가 부탁하는 게 상례인데 그대는 많은 고생을 하여 겨우 손에 넣은 책들을 바다 바깥에 있는 초췌하고 초라한 나에게 보내주었도다. (중략) 공자께서는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와 나의 관계는 전(前)이라고 더한 것도 아니고, 후(後)라고 줄어든 것도 아니다.”

스승의 <세한도>를 감격스럽게 받아 든 제자는 연경에서 감상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16명의 문사들은 ‘가히 시서화가 어우러진 명작’이라며 찬시(讚詩)를 남깁니다. 이에 가로 1m 길이였던 <세한도>는 16명의 제영이 곁들여져 14m짜리 작품이 됐습니다.

귀양살이하던 추사의 절박한 심경과 지조를 지킨 제자에 대한 고마움이 어우러진 그림에, 내로라하는 학자들의 찬시까지 곁들여지며 가치가 배가된 거죠. 세기를 대표하는 걸작이 된 셈입니다. <세한도> 오른쪽 하단에는 ‘장무상망(長毋相忘)’이란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오래도록 잊지 말자’라는 뜻인데요, 사제간에 이처럼 도타운 정을 나눴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세기의 걸작 <세한도>가 하마터면 일본 땅에 남을 뻔했던 사실을 아시나요?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 머물던 후지쓰카 지카시 교수가 경매에서 그림을 낙찰받아 일본으로 가져간 거지요. 이 소식을 접한 서예가 소전 손재형은 “나라의 보물을 되찾아 와야 한다”며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이던 1944년 도쿄로 건너갑니다. 후지쓰카 교수에게 두 달간 매일 문안을 드리며 설득한 끝에 소전은 <세한도>를 품에 안고 귀국했지요. 현재 그림을 소장 중인 컬렉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작품을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말년에 추사는 “제 글씨는 아직 부족하지만, 칠십 평생에 벼루 10개를 밀창 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추사체를 창안하며 동아시아 서예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다운 회고지요. 그러나 그는 단순한 서예가가 아닙니다. 글씨뿐 아니라 그림, 시와 문장, 고증학과 금석학, 차와 불교학에서도 높은 경지를 보인 르네상스맨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감식안도 대단해 청나라에서도 감정의뢰가 줄을 이었다는군요.

시서화, 유불선, 문사철을 관통하는 전방위적 인물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남긴 <세한도>를 이 계절 다시 음미해봅니다. 유배지에서도 고고한 품격을 잃지 않고, 걸작을 그려낸 그 기개가 느껴지는군요.

## 박용상 위원장 퇴임

제14대 박용상 위원장의 퇴임식이 지난 4월 4일 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중재위원 및 사무처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박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3년간 기울인 노력이 위원회 발전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위원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헌법학자이자 언론법의 최고 권위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박 위원장은 재임 기간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야기된 새로운 언론 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 존경하는 중재위원 여러분,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은 의미가 컸고 소중했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33년 성장한 우리 위원회의 건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봉직해 온 중재위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 온 업적을 정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토론하여 온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 판단기준'은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작업은 갈등관계에 있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제시·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천적 조화를 도모하는 일관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된다면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신장될 것입니다. 남겨진 일이 있다면 일반 국민이나 언론인들이 쉽게 참조할 수 있는 일반 버전의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아가, 인터넷 등장 이후 언론 환경의 변화로 야기된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 특별한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의 법적 존재와 위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으니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위원회는 세월호 사건 보도와 관련한 대량 신청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이를 원만하게 해결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위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정과 비리를 파헤쳐 공공에 알릴 권리라도 공익과 관련 없는 내밀한, 사적인 사상의 분별없는 폭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계속 발전해갈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중 한 단편의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받은 저의 작은 노력이 위원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자랑스러웠고, 저 역시 우리 국민이 위원회에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간 저에게 보여준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에 감사합니다. 위원회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4.

박 용 상

# COMMISSIONERS

▶▶▶ 위원동정



## 신임 중재위원 위촉

중재위원 27명이 새로 위촉되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임기 개시일은 3월 31일이다.

| 중재부     | 성명   | 현직 또는 주요경력                            |
|---------|------|---------------------------------------|
| 서울제1중재부 | 황병선  | (전)서울신문 논설위원, 편집국장<br>청주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
|         | 류춘렬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         | 진형해  |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
| 서울제3중재부 | 김영학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 이관해  | (전)충청일보 편집국장 겸 상무이사                   |
|         | 신현태  | (전)연합뉴스 논설위원, 전무이사<br>한서대 초빙교수        |
| 서울제4중재부 | 황용석  |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         | 양승찬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 서울제5중재부 | 김희진* |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 서울제6중재부 | 석인호  | (전)중앙일보 편집국 부장                        |
| 서울제7중재부 | 윤성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 이재진  |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 서울제8중재부 | 권혁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 민영   |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

| 중재부   | 성명   | 현직 또는 주요경력                            |
|-------|------|---------------------------------------|
| 대구중재부 | 강동명  |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 조성호  |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광주중재부 | 윤석년  |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 주정민  |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대전중재부 | 송종문* | (전)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br>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 |
|       | 이승선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 경기중재부 | 권덕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       | 송대근  | (전)스포츠동아 대표이사 발행인                     |
| 강원중재부 | 최영재  |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 충북중재부 | 정연우  |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 전북중재부 | 박강희* |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제주중재부 | 김진영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       | 문윤택  | 제주국제대 스마트미디어학과 교수                     |

\*표시 중재위원은 연임되었음

## 정교순 위원 중부대학교에 학교발전기금 천만 원 기탁

정교순 중재위원(대전중재부, 변호사)은 4월 5일 중부대학교 총장실을 찾아 학교발전기금 천만 원을 기탁했다.

## 양승찬 위원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토론

양승찬 중재위원(서울제4중재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은 4월 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방송의 정치 저널리즘 관행변화, 1992년 ~2012년>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승선 위원 <지역방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

이승선 중재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4월 14일 전북대 사회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방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주정민 위원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 토론

주정민 중재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4월 21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디지털 시대 지역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역할 및 상생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 제3회 미디어&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 참석

위원회가 4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회 미디어&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보, 설득, 관계와 권력 -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을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권혁중 중재부장(서울제8중재부), 권순택 중재위원(서울제2중재부), 양승목 중재위원(서울제6중재부)을 비롯하여 사무처 직원 김문성 차장(교육콘텐츠팀)과 권영민 조사관(서울제4중재부)이 참석해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에  
수록할 일반 연구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연구  
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

응모  
자격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원고  
마감

2017년 5월 15일(월)

논문  
접수

이메일접수(journal@pac.or.kr)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http://www.pac.or.kr))를 참조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02)397-3042로 문의 바랍니다.

언론평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mailto: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FAX 02)397-3089